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재단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김현아 씨의 아들 이원호입니다. 직접 뵙고 감사를 전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글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집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아버지와 헤어 지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어머니는 우리 형제를 살뜰히 키우느라 평생 동안 해보 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몸이 자주 붓고 복수가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만 성 B형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약물 치료를 권했기에 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로도 치료가 될 것이란 희망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으나 차도가 보이질 않았습 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께 간 이식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게 하자는 마음에 아들인 제가 어머니께 간을 드리기로 했 습니다. 수술은 무리 없이 잘 될 것이라는 의료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나 어머니와 제게 직 면한 큰 걱정은 고액의 병원비였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상황이었고, 동생은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사직했던 터라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벌어 둔 돈이 없어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을 하던 몽롱한 상태에서 도 제 머릿속에는 병원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평성모병원의 사회복지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산재단에서 어머 니의 병원비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머니와 저는 하루 종일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 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덕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는 분명 우리 가족보다 더 병원비가 절실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 다.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밖에 감사를 전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아산재단으로부터 어머니와 제가 받은 은 혜를 평생 잊지 않고 세상에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호 올림

